

## 초산모를 위한 육아 교육이 어머니의 신생아 양육행동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이 자 형\*\*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출산이라는 사건으로 아기가 없는 여성에서 아기가 있는 여성으로 전환되는 산욕기(postpartum period)는 모성전환(transition to motherhood)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사람은 흔히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 획득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역할 변화를 준비하게 함으로서 부모로써 잘 적응하게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해야 하는 중요한 기간이다.

부모 특히 어머니는 무력하고 의존적이며 미숙한 영아의 양육을 담당하는 도구적, 정서적 측면의 양육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영아의 안녕과 행복 및 미래의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양육은 의존적인 영유아가 계속적인 보호와 관심을 필요로 하므로 항상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경험이다. 그러나 임신 기간에 부모 역할에 관한 훈련이 없고 출산 후에도 책임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기간이 없이 즉시 24시간의 임무로 아기를 돌볼 책임을 지게 되어 첫 아기를 출산한 초산모는 혼란과 좌절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들 초산모가 산욕기에 겪는 어려움은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임신 전 상태로 회복되

는 것 뿐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역할 즉 모성 역할 전환기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다수의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퇴원 후에는 가족(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 맡겨져 어머니 자신과 신생아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차 핵가족화 되어가는 사회현상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의료비 상승으로 보험공단이 추진하여 병원에서의 체류기간이 짧아지고, 산모와 신생아가 조기에 병원을 떠나고 있으며(Arnold & Bakewell-Sachs, 1991; Donaldson, 1991; Lukacs, 1991) 우리의 현실도 이와 유사하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생리적 심리적 변화 및 그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산욕기 산모와 그 가족의 교육적 요구와 지지적 돌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Donaldson, 1991) 합병증이 없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적절한 간호 제공으로 건강문제가 초래되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다(Lemmer, 1987; Pittard & Geddes, 1988). 또한 어머니들이 영아의 질병, 영양공급, 제대간호 등에 교육요구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고(Birk, 1996; Davis et al, 1988), 초산모들이 신생아 돌보기에 많은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이경혜, 1982; 이은숙, 1988; 이자형, 1997). 한편 이들 어머니들의 신생아 양육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드문 실정

\*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1994년도 2기분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 졌음.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이다(김문실과 이자형, 1983; 이미경, 1991; 정계하, 1993; Birk, 1996; Donaldson, 1991; Hill, 1987; Smith, 1978).

그러므로 초산모와 신생아의 적응 및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산모 자신들을 위한 산욕기의 신체 심리 변화, 산후 조리의 교육과 함께 신생아의 특성, 아기 돌보기 등의 어머니 역할을 위한 준비 교육을 산욕초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육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어머니역할 준비교육의 간호중재 방안을 제시하고 산모 교육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임상에서 확대 적용하여 신생아와 어머니의 적응을 도움으로서 모자의 건강 유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초산모에게 제공된 육아교육이 산욕 초기 초산모들의 양육행동 수행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 3. 연구의 가설

- 1) 육아 교육을 제공받은 초산모는 육아 교육을 제공받지 않은 초산모보다 신생아 양육행동 수행 점수가 높을 것이다.
- 2) 육아 교육을 제공받은 초산모는 육아 교육을 제공받지 않은 초산모보다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 3) 어머니들의 신생아 양육행동 수행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 것이다.

## 4. 용어 정의

### 1) 양육 행동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으로(박성연과 이숙, 1990), 본 연구에서는 Steele와 Pollack이 규정한 양육행동과 Davis 등(1988) 및 Ewy와 Youmans (1988)의 자료를 기초로 구성된 15문항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2) 어머니 역할 자신감

역할이란 개인이 가족, 사회 집단내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위치와 관련된 행동, 의무, 권리에 대한 기대로써(Duvall, 1977), 본 연구에서는 Lederman, Weigarten과 Lederman의 14문항의 자신감 척도를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II. 문헌 고찰

### 1. 어머니 역할과 양육

가족의 성장발달에 있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출생은 새로운 과업이 요구되는 「가족 사건」인 동시에 의미 있는 경험으로서 부모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사전적 정의로 어머니는 아기를 낳은 여자, 자식을 가진 여자를 높이어 일컫는 말이다(동아출판사, 1989). 역할은 “한 사람이 어떤 특수한 사회적 맥락속에서 어떤 특수한 위치를 점유하였을 때 수행하는 기능들”이라 하였다(홍대식, 1985). 그러므로 어머니 역할은 여자가 자식을 낳음으로써 수행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은 결혼 후 부부중심의 생활을 하다가 첫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어머니가 되며 이 전환은 역할에 변화를 가져온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미숙하고 무력한 아동을 돌보는데 대해 책임감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돌보는 활동 즉 수유, 안아주기, 옷 입히기, 청결히 해주기, 보호하기 등의 인지적-운동적 기술(cognitive-motor skill)과 인지적-정의적 기술(cognitive-affective skill)의 아기의 육유에 대한 인식, 부드러운 태도 등 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활동이 요구된다(Bobak, Jensen & Zalar, 1989). 이는 이 시기 아동의 특성인 의존성 때문으로 어머니와의 원만한 상호작용 내에서 그 육유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생존과 안녕은 물론 돌봄의 질에 따라 아동의 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해 어머니의 돌보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Rutler, 1979; Wachs & Gruen, 1984). 이와 관련하여 Jaggar(1983)는 어머니 일 수행(mothering)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관계로 정의하였고, Antonis(1989)는 생득적인 기체의 발현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이와의 관계에서 학습을 통해서 발달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여성의 어머니됨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리 심리적 과정을 통해 본능이 아닌 돌보는 학습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즉 생물학적 요소인 임신, 출산, 수유와

사회적 요소인 양육과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Gordon, 1976).

한편 산육 초기 어머니의 자녀 돌보는 활동 즉 양육행동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어머니로서의 자아 개념이 높아 질 뿐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도 보고(Golas & Parks, 1986)되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역할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정신 생물학적 기능의 수행으로서 Steele와 Pollock(Bobak et al, 1989에 인용)이 모성 역할의 인지적-운동적 기술로 분류한 먹이기, 안아주기, 옷입히기, 청결히하기, 보호하기 등을 양육행동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 Davis, Brucker & Macmullen(1988) 및 Ewy와 Youmans(1988)이 신생아 부모의 교육 요구도로 확인한 활동을 포함하여 모유 먹이기, 기저귀 갈아주기,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배꼽 소독하기, 눈·귀·코 청결히 하기, 손톱 깎아주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아기상태 파악하기, 울음 파악하기, 안아주기, 달래기, 체온재기, 건강관리(예방접종)하기로 양육행동을 구체화시켰다.

## 2. 초산모의 신생아 양육에 관한 선행연구

출산 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영아에 대한 지각, 태도, 역할기대, 관심사, 자아개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는 육아 실제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이며, 양육을 위한 준비 정도를 확인하고 교육효과를 제시한 연구는 소수이다.

즉 육아법(성은모, 1982), 육아관행(강신선, 1983; 이은희, 1975), 육아지식(김순이, 1991; 소선주, 1986) 등이 보고되었다. 육아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보살핌과 애정어린 협력을 제공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Rossi(1968)와 원정선(1990)은 어머니가 자녀 양육이라는 중요한 일의 거의 준비가 안된 채 시행착오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 아동의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거나 부모 역할에 대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다(김순이, 1991). 그러나 신미자(1980)는 어머니의 육아에 대한 피교육 경험 유무가 영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육아실천 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교육내용이 피상적이거나 어머니의 태도와 행위가 수정될 만큼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teffensmeier

(1982)와 Russel(1974)은 아기양육 준비 척도로써 도구를 제시하고 있으며,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형태를 통해 습득된 기술, 지식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한편 원정선(1990)과 김순이(1991)는 실제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그 역할과 관계된 행위를 연습이거나 그와 관계된 규범을 배우는 것으로 비형식적 교육형태(가정, 이웃, 사회에서 우연적 무의식적이거나, 의식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와 형식적 교육형태(전문가가 학습자를 조직된 교육내용을 매개로 일정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를 구별하고 있다. 또한 이영은(1992)은 모성 역할 수행척도를 Pharis(1978)와 김희경(1987)의 도구를 수정하여 울음의 의미 파악, 달래기, 목욕시키기, 젖 먹이기, 기저귀 갈기, 옷 갈아입히기, 안아주기, 트림시키기, 잠재우기 등 영아 돌보기 활동으로 도구화하였다. 그 외에도 모성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특성, 산과력, 건강상태 등이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적을수록 어려움을 더 느끼고(Goldsteen & Ross, 1989) 교육수준, 연령, 수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Crnic, Greenberg, Robinson, Ragozin, & Basham, 1984; Walker, Crain & Thompson, 1986) 보고되었다.

산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교육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시도된 몇몇 연구(김문실과 이자형, 1983; 이미경, 1991; 정계하, 1993)가 있으나, 지식의 측정 및 검증 시기와 효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신생아기 말에 어머니로부터 양육행동을 파악하고 자신감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 설계

유사 실험 연구로 실험확산으로 인한 내적 타당도의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로 시행하였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E 대학병원에서 1995년 3월부터 1996년 5월까지 정상 분만한 초산모로써 연구에 동의한 실험군과 대조군 각 30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신생아와 산모의 제 특

성에 의한 양육환경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국한하였다.

- 1)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기혼자.
- 2) 임신, 분만 및 산욕기에 합병증이 없는 자.
- 3) 재태기간 38주 이상 42주 미만의 출생시 체중이 2.5 kg 이상 4.0kg 미만인 신생아를 질식 분만한 초산모.
- 4) 모유 수유를 계획한 자.

### 3. 연구 도구

#### 1) 신생아 양육 행동 평정표

육아 즉 아동 양육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Steele와 Pollack이 규정한 양육 행동과 Davis et al(1988), Ewy와 Youmans(1988)의 산욕초기 초산모 교육 요구도를 기초하여 작성한 모유 먹이기, 기저귀 갈아주기,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배꼽 소독하기, 눈·귀·코 청결히 하기, 체온재기, 아기상태 파악하기, 울음 파악하기, 안아주기, 달래기, 건강관리(예방접종)하기에 대한 15문항으로 5점 척도(아주 못한다 1점-못한다 2점-보통이다 3점-잘한다 4점-아주 잘한다 5점)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평정 도구로 점수 범위는 5-75점이며 점수가 많을수록 양육행동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93이었다.

#### 2)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Lederman, Weigarten & Lederman(1981)의 산욕기 어머니의 모성역할 적응도 측정 도구중 어머니의 발달과업 대처능력에 대한 자신감 척도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가 평가 설문지로 산모가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영아 행동의 이해 및 영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식의 4점 평정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그렇지 않다 2점-그런편이다 3점-그렇다 4점)로 점수 범위는 4-56점이며, 점수가 많을수록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이었다.

### 4. 자료 수집 절차

교육용 책자 발간, 예비조사 및 연구원 훈련, 대상자 선정, 실험처치(육아교육) 및 자료 수집의 단계로 시행하였다. 이때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실험의 확산(diff-

fusion of treatment)을 방지하기 위해 대조군의 자료 수집을 실시한 후 실험군에 교육을 실시하였다.

#### 1) 교육자료

##### (1) 책자

- ① 모성 전환에 관련하여 산모 자신의 산욕기의 신체·심리·사회적 특성과 산후조리(연구대상자 특성상 산욕초기 산모 자신을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 ② 신생아의 발달 특성 및 육아에 관한 교육용 책자

##### (2) 물품

- ① 산후 몸조리에 필요한 물품(유방 및 회음관리용품)
- ② 신생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물품(인형, 목욕용기, 기저귀, 체온기 등)

#### 2) 교육 및 측정

##### (1) 대조군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초산모 중 연구에 참여하기를 승락한 대조군은 분만 후 24~36시간에 양육행동평정표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육아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신생아실 간호사가 상례적으로 행하는 수유 및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과 산모 및 보호자의 질문에 응답하였다. 2차 자료수집은 분만 후 4주에 전화로 설문에 응답할 것을 확인한 후, 신생아기 이후 자녀양육에 필요한 책자(영아 돌보기)와 함께 설문지를 우송하여 응답한 후 반송하게 하였다.

##### (2) 실험군

대상자 선정 기준의 준거에 따라 선정된 초산모 중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실험군 대상자는 분만 후 24시간~36시간에 모아 접촉을 시도하고, 신생아 양육행동평정표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였다. 육아교육은 개별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분만후 48~72시간에 수유시간을 전후하여 교육용책자 및 물품을 가지고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시범을 보였다. 또한 실제 양육행동을 시도하도록 격려하며 교육, 상담 및 지지하였다. 교육시간은 30-40분이 소요되었다. 2차 자료수집은 분만 후 4주에 전화로 설문에 응답할 것을 확인한 후 책자(영아 돌보기)와 함께 설문지를 우송하여 신생아 양육행동 및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응답하여 반송하도록 하였다.

##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분석방법은 연구대상자의 제 특성은 기술통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제 특성의 동질성 검정은  $X^2$  test와 t-test로 하였고, 교육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군의 2차 수집자료 즉 분만 후 4주에 측정된 양육행동 및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를 t-test로 실험군의 교육전후의 양육행동 및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검정하였다. 초산모의 양육행동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상관성 분석은 Pearson Correlation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제 특성

연구대상 초산모의 연령은 최저 23세에서 최고 35세였으며, 평균 27.9세였다. 학력은 다수(37명, 61.7%)가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졸업자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19명(31.7%)이었고, 중학교졸업은 4명(6.7%)에 불과했다. 직업은 있는 경우가 34명(56.7%)이었고, 없는 경우는 26명(43.3%)으로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다소 많았다. 가정의 월수입은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이었으며, 평균 165만원이었다. 가족형태는 54명(90%)이 핵가족이라고 했으며, 확대가족은 6명(10%)에 불과했다. 대상 초산모의 신생아 제 특성은 재태기간과 성별을 확인한 결과 38주에서 41주에 속했으며, 평균 39.5주였다. 또한 남아가 39명(65%), 여아가 21명(35%)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많았다.

### 2.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제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 초산모의 연령, 학력, 직업, 월 평균 수입, 가족형태, 분만한 신생아의 성별간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실험군과 대조군 제 특성의 동질성 검정

특성	구분	실험군 빈도(%)	대조군 빈도(%)	$X^2$ or t	P
교육 수준	중졸	3	1	3.47	.18
	고졸	10	9		
	대졸	17	20		
직업	유무	15	19	2.47	.29
		15	11		
가족형태	핵가족	27	27	.00	1.0
	대가족	3	3		
신생아성	남	21	18	.65	.42
	여	9	12		
연령	평균	28.0	27.9	.05	.96
수입	평균	163.0	163.6	-.04	.97

#### 2) 실험군과 대조군 제변수의 동질성 검정

또한 실험처치인 육아교육 실시전 두 군의 양육행동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만 후 48~72시간에 측정된 초산모들의 신생아 양육 행동 점수는 평균 2.62로 대부분이 할 수 없다고 준비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도 평균 3.2로 점수가 높지 않았다. 한편 양

육행동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 실험 전 두

〈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처치 전 양육행동 점수 및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 검정

특성	집단	평균	t	P
양육행동	실험군	2.68	.63	.533
	대조군	2.57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실험군	3.25	.71	.483
	대조군	3.16		

군의 점수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교육전에는 양육행동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정도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3. 가설 검증

1) 제1가설 검증

육아교육 전후 실험군 초산모의 양육행동의 차이는 교육 전보다 교육 후 유의하게 높았다( $t = -9.69, P = .000$ ) (표 3-1 참조).

〈표 3-1〉 육아교육 전후 실험군 초산모의 양육 행동의 차이

집단	시기	평균	표준편차	paired-t	P
실험군	교육 전	2.68	.57	-9.69	.000
	교육 후	3.66	.39		

육아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군 초산모와 대조군 초산모의 분만후 4주에 육아행동을 확인한 결과는 〈표 3-2〉와 같이 육아교육을 받은 실험군 어머니들이 대조군 어머니보다 양육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 $t = 3.5, P = .001$ ) 신생아 양육 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육아교육 4주 후 초산모들의 신생아 양육 행동의 차이

	실험군 평균 (표준편차)	대조군 평균 (표준편차)	t	P
신생아 양육행동	3.66(.39)	3.23(.54)	3.5	.001

2) 제2가설 검증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육아교육을 받은 실험군 어머니의 경우 교육 전후에 차이가 없었다(표 4-1 참조).

〈표 4-1〉 육아교육 전후 실험군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

집단	시기	평균	표준편차	paired-t	P
실험군	교육 전	3.25	.47	-.30	.765
	교육 후	3.28	.50		

육아교육을 받은 실험군 초산모와 육아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 초산모의 산후 4주에 측정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는 〈표 4-2〉와 같다. 즉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육아교육을 받은 어머니와 교육을 받지 않은 어머니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2〉 육아교육 4주 후 초산모들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

	실험군 평균 (표준편차)	대조군 평균 (표준편차)	t	P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3.28(.50)	3.10(.42)	1.50	.13

3) 제3가설 검증

초산모들의 양육행동 수행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관계를 확인한 결과  $r = .516 (P = .001)$ 으로 양육행동 수행 점수가 높을 수록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초산모의 양육행동 점수와 어머니 역할 자신감의 상관관계

신생아 양육행동	어머니 역할 자신감 .517(P=.001)
----------	----------------------------

V. 논 의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 이 시기에 최적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체의 생리적 준비도와 환경적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환경적 지원이 제공될 때 최적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때 부모 특히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육아(child rearing practice)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보살핌과 애정어린 협력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말한다(유안진, 1990). 최보가(1983)는 육아란 소아를 건강하게 출생시키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하게 발육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구의 급격한 팽창과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혈연 가족간의 축소된 관계는 젊은 세대가 자녀 양육에 대해 보고 배울 모델의 상실은 물론 확대가족으로 부터의 도움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기르던 시대에는 성장하면서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 크는 것을 보면서 무의식 중에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어머니는 많은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과정속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을 경험을 통해 축적해 갔다. 따라서 오늘날 산업사회에서는 핵가족화가 일반화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직접, 간접 경험의 기회가 상실되고 부모로 부터의 도움조차 받기 어렵게 되려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 수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부모됨의 「역할 전환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한 원정선(1990)의 조사에 의하면 부모됨에 대한 준비가 형식적·비형식적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경시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신미자(1980)는 어머니의 육아에 대한 피교육 경험유무가 육아 실천 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교육 내용이 피상적이거나 어머니 태도 및 행위가 수정될 만큼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아동 양육 경험이 없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배우려 하고 돌보려는 요구가 특징인 산육기 초기에 육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초산모들의 신생아 양육행동은 분만후 48~72시간에 평균 2.62였다. 이는 이경혜(1982), Sumner와 Fritsch(1977)의 산후 6주간의 부모가 특히 어려워하고 많은 질문을 했다는 보고와 유사했다. 또한 Field와 Renfrew(1991)의 연구에서도 산육기 산모들에게서 영아 돌보기와 관련하여 교육과 지지적 간호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이자형(1996)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산육초기 초산모들은 목욕시키기, 수유하기, 배꼽 소독하기, 울음의 의미와 상태 파악하기 등에서 특히 어려움을 많이 표해 말할 수 없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이들 초산모에게 신생아의 발달 특성 및 돌보기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산후 4주에 신생아 양육행동을 측정한 결과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평균 3.7로 잘한다(4)고 볼 수 있는데 비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은 평균 3.2로 보통이다(3)에 가까운 평점을 보고하였다( $t=3.5$ ,  $P=.001$ ). 따라서 분만직후에 두군의 신생아 양육행동에 차이가 없는( $t=.63$ ,  $P=.53$ )점을 비추어 산육 초기에 체계화된 교육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Wachs와 Gruen(1984)은 영아의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영아의 상태와 능력에 맞도록 돌봐져야 효과적이라고 했다. 한편 여성이 실제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 가지고 단순히 어머니

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임신 시부터 아이에 대해 준비한 것과 관련하여 출산 후에 아이를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쁨을 느끼고 동시에 갈등하면서 어머니로 적응되는 것이다. 임신, 출산과 달리 아이 키우기는 의존적인 영유아가 지속적인 보호와 관심을 필요로 하여 항상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경험이다(변혜정, 1992).

여성은 임신·출산이라는 생리·심리적 과정과 본능이 아닌 학습을 통해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이때 어머니는 영아의 요구와 양육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을 통해 습득해야 하며 어머니로서의 뚜렷한 역할 인식이 있어야 갈등없이 자신감을 갖고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김순이, 1991). Jaggar(1983)는 어머니일 수행(mothering)의 개념을 '한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관계'로 정의하고,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로 한정하였다. 한편 어머니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나 마음 먹은대로 잘 되지 않는다. 실제 양육행위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어머니되는 경험에 대해 부정적, 긍정적 평가를 하게 된다(변혜정, 1992). 한편 본 연구에서 신생아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신생아를 돌본 실험군과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점수에 차이가 없었다. 한편 실험군 어머니는 산육초기(3.25)에 비해 분만 후 4주(3.28)에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비해 대조군은 초기(3.16)에 비해 4주(3.10)에 다소 낮아진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와 관련한 이영은(1992)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나, 어머니로서의 역할 적응이 신생아 양육 이외에 육체·정신·심리·사회적 제 변인이 관련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련 변수와의 검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생아 양육행동과 어머니 역할의 자신감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r=.57$ ,  $P=.001$ ) 나타나, 아기를 잘 돌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머니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육행동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Bobak et al, 1989)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역할 수행은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역할을 실제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역할과 관련하여 행위자가 하는 행동으로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수행의 측면으로 양육 행동을 평가할 때 이를 지지하기 위한 간호중재의 필요성은 근대 사회변화(핵가족화)와 더불어 크게 강조된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욕초기 초산모(실험군 : 30명, 대조군 : 30명)들을 대상으로 육아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995년 3월부터 1996년 5월까지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에 의한 유사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교육은 산욕초기(분만후 48~72시간)에 실시하고 교육후 4주에 교육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2차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육아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 초산모의 분만 4주 양육 행동 점수는 산욕 초기보다 높았으며( $t = -9.69, P = .000$ ), 대조군 초산모보다 높았다( $t = 3.5, P = .001$ ).
- 2) 육아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 초산모와 받지 않은 대조군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차이가 없었다.
- 3) 초산모의 양육 행동 평정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다( $r = .56, P = .001$ ).

이상에서와 같이 산욕초기 초산모들에게 육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신생아 양육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양육행동을 잘 하는 산모의 어머니 역할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핵가족이 대부분인 현실 상황에서 초산모들을 위한 육아교육은 간호중재 방안으로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문실, 이자형 (1983). 신생아 양육에 대한 산모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 중양의학, 44(1), 25-30.
- 김순이 (1991).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위한 준비도에 따른 육아지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 (1987). 출산의 위험요인 유무별 산욕초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 인식과 자가간호 수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혜정 (1992). 임신에서 초기 양육까지의 어머니일 수행 경험으로 인한 어머니로의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은모 (1982). 한국 어머니의 육아법에 관한 조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선주 (1986). 도시와 농촌 어머니의 육아지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자 (1980). 영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육아행위 실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1990). 아동 양육, 문음사.
- 원정선 (1990). 부모됨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혜 (1982). 산욕기 산모의 어머니역할에 대한 인식과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12(2), 67-79.
- 이미경 (1991). 신생아 양육에 대한 교육이 산모의 돌보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 외 (1992). 모성간호학, 현문사.
- 이영은 (1992). 산욕초기 초산모의 간호목표 달성방법 합의가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숙 (1988).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의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희 (1975). 한국 어머니의 육아 관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자형 (1996). 산욕초기 초산모의 신생아 양육행동. 아동간호학회지, 2(1), 5-12.
- 정계하 (1993). 신생아 돌보기의 교육 유무에 따른 초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활동 자신감.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보가 (1983). 육아학. 서울: 형설출판사.
- 홍대식 (1985). 사회심리학 이론. 서울: 박영사.
- Arnold, L., & Bakewell-Sachs, S. (1991). Models of perinatal home follow-up. Journal of Perinatal & Neonatal Nursing, 5(1), 18-26.
- Baik, D. (1996). Postpartum education : Teaching priorities for the primipara. Journal of Perinatal Education, 5(2), 7-12.
- Bobak, I. M., Jensen, M. D., & Zarlar. (1989). Maternity and Gynecologic Care. St. Louis : C. V Mosby Co.
- Cri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Davis, J. H., Brucker, M. C., Macmullen, N. J. (1988) A Study of Mothers' Postpartum Teaching Priorities,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7(1), 41-50.



- Donaldson, N. (1991). A review of nursing intervention research on maternal adaptation in first 8 weeks postpartum. Journal of Perinatal & Neonatal Nursing, 4(4), 1–11.
- Ewy, D. H., & Youmans, J. M. (1988). The Early Parenting Experience. In F. H. Nichols & S. S. Humenick (Eds.). Childbirth Education : Practice, research, & theory (69–93). Philadelphia: W. B. Saunders Co.
- Field, P., & Renfrew, M. (1991). Teaching and support : nursing input in the postpartum period. International Journal Nursing Studies, 28(2), 131–144.
- Golas, G. A., & Parks, P. (1986). Effect of Early Postpartum Teaching on Primiparas' Knowledge of Infant Behavior and Degree of Confidence. Research in Nursing & Health, 9, 209–214.
- Gordon, L. (1976). Woman's Body, Woman's Right : A social history of birth control in America. New York.
- Goldstein, K., & Ross, C. E. (1989). The perceived burden of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4), 504–526.
- Jaggar, A. (1983). Feminist Politics & Human Nature. N.J.: Rowman & Allanheld.
- Lederman, R. P., Weigarten, G., Lederman, E. (1981). Postpartum self-evaluation questionnaire : Measures of maternal adaptation. Birth Defects Original Article Series, XIII(6), 201–231
- Lemmer, C. (1987). Early discharge : Outcomes of primiparous and their infants.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16, 230–236.
- Miller, B., & Sollie, D. (1989). Normal stresses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Family Relations, 29, 459–465.
- Pharis, M. E. (1978). Age and sex Difference in Expectations for Infants and the Parenting among Couples in a First Pregnancy and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Rossi, A. (1968).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0, 26–39.
- Russel, C. S. (1974). Transition to parenthood : problems and gratifi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6, 294–302.
- Rutter, M. (1979). Maternal Deprivation : new findings, new concepts, new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0, 283–305.
- Steffensmeier, E. M. (1982). A Role Model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4, 319–334.
- Sumner, G., & Fritsch, J. (1977). Postnatal Parental Concerns : The First Six Weeks of Life. JOGN Nursing, May/June, 27–32.
- Wachs, T. D., & Gruen, G. (1984). Environmental Stimulation & Early intervention, zero to three.
- Walker, L. O., Crain, H., & Thompson, E. (1986). Mothering behavior and Maternal role attainment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Nursing Research, 35(6), 352–355.

– Abstract –

Key concept : Childcare education, Newborn care behavior, Maternal role confidence

### **The Effect of a Childcare Education for First-time Mothers on Newborn Care Behavior and Confidence in Maternal Role \***

*Lee, Ja Hyung\*\**

The postpartum is a period of transition to motherhood where a childless woman transforms into a woman with children. Parents, especially mothers must perform an essential role of implementing instrumental and emotional care behaviors on part of the helpless, dependent, and immature infant. First-time mothers, however,

\* This research has been funded by Ewha Womans University 1994 2nd term research fund.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suddenly face the responsibility of round the clock duty without neither parenting training during pregnancy, nor a time to gradually adapt to growing responsibilities after birth, with confusion and frustration as a result. Thus, after providing first-time mothers with childcare education as maternal role preparation, this study will try to examine its effects on childcare behaviors and confidence in maternal role during the early postpartum period.

This quasi-experimental study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was carried out from March 1995 to May 1996 to verify the effects of a childcare education program with first-time mothers who had vaginal delivery in Ewha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and collected data from 60 subjects who consented to the study. The education was given in the early postpartum period(48-72 hours after delivery) and to measure its effects, a posttest was done 4 weeks

later with the results analyzed by SPSS shown in the following :

1. The childcare behavior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that had received the newborn care education was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t=3.5$ ,  $P=.001$ ).
2.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had received the education showed no difference in degree of confidence in maternal role.
3. The higher the childcare behavior score, the higher the degree of confidence in maternal role was among the subjects( $r=.56$ ,  $P=.001$ ).

The preceding results are significant in that childcare practices can be promoted by providing child-care education to first-time mothers in the early postpartum period. Thus, this education can be used as a nursing intervention strategy in the early postpartum period.